

2008년 이후에도 거품은 여전

글로벌 금융계 문제점 파헤쳐



상어와 헤엄치기

라위언데이크 지음  
김홍식 옮김

많은 이들은 지난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전망지로 금융계를 꼽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그곳은 어떤 곳이며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세계 금융의 심장부를 배경으로 오늘날 금융업의 실상을 명쾌하게 기술한 탐사가 출간됐다. 네덜란드 저널리스트이자 논픽션 작가인 요리스 라위언데이크가 쓴 '상어와 헤엄치기'는 인류학적 관점으로 거대한 글로벌 금융의 세계를 포착한다.

저자는 특히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복잡한 금융 용어나 설명 대신 은행가들의 생생한 증언과 특유의 통찰력으로 금융계 이면을 들여다본다. 금융계의 구조 못지않게, 다층적인 은행가들의 문화는 기존의 동일한 부류의 책과는 변별된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 세계는 '완전한 붕괴에 서니 밀리미터'까지 갈 정도로 위급했다. 대중들은 뉴스에 나온 '리먼 브라더스 피고용자들의 파산병' 같은 모습에 고소해 했지만, 정작 은행가들은 곧바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식

품을 비축했다. 여기에 금을 매입하고 아이들을 시골로 대피시킬 만반의 준비를 했다.

많은 은행가들이 그 사태에서 '정쟁의 공포'를 느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책은 그동안 대중들이 알고 있던 금융계 이미지를 하나하나 깨뜨린다. 금융계는 고급 기자회견장에서 최고 경영자가 발표하는 통계자료나 홍보 기사가 만들어내는 신뢰 넘치는 이미지와는 딴판이다. 완벽히 통제·관리되는 세계가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신념이 지배한다.

저자는 우스꽝스러우리만큼 원시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시장에 돌발 변수가 생기면 최후의 수단으로 컴퓨터 전선을 뽑아 버린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 세계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라질" 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류학자가 현지 원주민 문화를 알아가듯, 저자는 은행가들의 직종에 따른 취급하는 거대 아웃리치, 농담, 은어를 익힌다. 이를 데면 데쪽 유럽 은행가들은 갈색 구두를 신고 M&A를 취급하는 거대 해결사들은 에르메스 상표 넥타이를 맨다. 상어군이 0일 때를 '도넛'이라고 하고 동시에 다섯 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브로커의 귀'라고 한다. <열린책들·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암컷 모기는 피·꿀을 최적 비율로 섭취한다

곤충의 통찰력

길버트 월드바우어 지음  
김홍욱 옮김



자연선택이 이끈 진화는 30만 종이 넘는 식물과 120만 종이 넘는 동물을 만들어냈다. 그 동물 가운데 90만 종이 곤충이다. 이들 곤충 집단은 인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만약 곤충이 없다면 농업을 비롯한 생태계 전반이 무너진다.

그런데 그 중 2% 미만만이 제멋대로 굴면서 인간이 재배한 곡물을 먹어치우고 질병을 옮기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른다. 따라서 오직 극소수 곤충만을 해충이라 불리어 마땅하다. 진화론에 근거해 곤충의 생활양식을 소개한 책이 출간됐다. 일리노이 대학교 곤충학과 명예교수 길버트 월드바우어가 펴낸 '곤충의 통찰력'은 곤충의 삶과 생태를 조명한다. '해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해충을 대상으로,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살펴본다.

그렇다면 해충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것은 "해충이란 인간 활동을 간섭하는 곤충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몇몇 곤충종은 항상 동시에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투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영경귀꽃에서 꿀을 먹고 있는 성충 북부옥수수곤충.

<에코리브르 제공>

저자는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의 주인이자 정복자라고 여기지만, 곤충이야말로 인간에 앞서 세상을 통제하고 완전히 장악해왔다고 본다. 일례로 인간이 그들의 고유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려 할 때마다 집요하고 능란하게 저지해왔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곤충에 비해 중요한 우위를 점했다고 우물대기 힘든 처지다.

책에 기술된 곤충의 습성은 매우 흥미롭다. 초식성 큰담배나무방 애벌레, 씨앗을 먹는 곡류 해충, 그리고 잡식성 바퀴벌레는 균형 잡힌 식단을 짤 수 없다. 메뚜기는 여러 식물종을 섞어 제시했을 때 최적의 비율로 섞어 먹는다. 암컷 모기는 피와 꿀을, 꿀벌은 꿀과 꽃가루를 최적의 비율로 섭취한다. 포식성 곤충은 다른 종류의 먹이감을 골고루 섞어 먹음

으로써 식단의 질을 높인다. 그렇다면 곤충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것과 다른 공중이나 동물한테 먹히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놓여 있다.

북극 지방과 온대 지방에 사는 곤충에게 겨울나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은 휴면이라 일컫는 동면 비슷한 상태로 살아남는다. 휴면 기간 발달을 멈추고, 지독한 추위를 견디며, 비축한 지방으로 살아남기 위해 신진대사율을 낮춘다.

다른 종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방법도 또한 다양하다. 그들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밤에 날아다니는 나방은, 박쥐가 반향 위치 측정을 하면서 내는 울음소리를 듣고 회피작

전을 쓴다. 꿀벌은 침입자를 쏘아 자기 군체를 보호한다. 검은제비꼬리나비는 여러 방어기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작은 유충은 새똥처럼 보이도록 변장술을 써서 새들을 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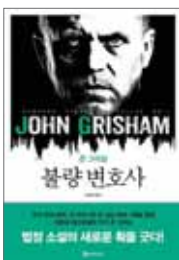
저자는 인간은 대다수 비해충보다 우리의 이해와 상충하는 소수 해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본다. 그들이 피해를 안겨 주므로 무해하다 싶은 곤충보다 그들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다행히 우리가 해충에 관해 알아낸 사실은 다른 모든 곤충에게도 적용될 뿐 아니라, 인간 역시 생존을 기대고 있는 전자구조 생명체의 망에서 곤충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에코리브르·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마약중독자·악마 승배자·연쇄 살인범...

누구라도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불량 변호사

존 그리삼 지음  
강동혁 옮김

서베스천 리드는 유명한 변호사이지만, 좋은 의미의 범람가는 아니다. 그는 파산 소송, 부동산 거래 확정, 유언, 소유권 증명, 계약, 이혼, 입양 사건은 말지 않는다. 전에 살던 1층의 복층 아파트와 옛 사무실이 폭탄을 맞은 이후 번듯한 사무실도 없다. 인터넷과 바, 작은 냉장고와 고급 가죽 의자 등이 내장된 특수 방탄 밴이 그의 사무실이다.

29개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에서 3억 부 이상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

존 그리삼의 신작 소설 '불량 변호사'가 나왔다. 출간 반 년 동안 '퍼블리셔스 위클리'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만큼 통념을 깨뜨린 새로운 법정 스릴러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인공인 서베스천 리드는 누구나 '꺼리는' 소송을 전담한다. 마약 중독자, 악마를 승배해 여자아이 두명을 죽인 아이, 사악한 연쇄 살인범 등. 서베스천은 왜 이들을 변호하는가. 그는 결코 이타적이거나 희생적인 사람이 아니다. 대신 서베스천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소설은 다섯 개의 개별적인 사건이 하나의 대상을 향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던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연 정의를 수호하는 법과 도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학수첩·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답'이 만들어 낸 거대한 역사적 산물 수학사



세상을 바꾼 위대한 오답

김관연 지음

대부분 사람들은 수학을 '정답'의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답을 배우고, 익히도록 연습하기 바쁘다. 그러나 오답은 수학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학사를 돌아보면 정답은 오답으로부터 출현했다. 수학을 소개해 한 글을 쓰고 보드게임

수학 인문학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수학짜' 김관연이 펴낸 '세상을 바꾼 위대한 오답'은 수학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담고 있다. '수학짜'는 '수학자'와 '폭군'이 발음되지만 기존의 수학자와는 다른 방향의 벡터를 지니며 수학으로 별난 일을 도모한다는 데서 붙었다.

저자는 수학사를 '오답'이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적 산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 들려준다. 또한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왜 오답이 중요한가를 수학의 중요하고도 평범한 질문 12가지를 소재 삼아 이야기를 풀어낸다. <궁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유인원에서 양자물리학까지... 과학적 사고 이끈 호기심



호모사피엔스와 과학적 사고의 역사

물로디노프 지음  
조현욱 옮김

유인원에서 우주를 이해하는 인간이 되기까지! 인류 최초의 도구 발명에서 양자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게 됐는지를 담고 있다.

레오나르도 물로디노프가 쓴 '호모사피엔스와 과학적 사고의 역사'는 인류의

과학적 사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현재 우리는 돌을 깎아내서 만든 돌도 깨진 다재다능한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며, 맨눈으로 별을 관측하던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세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물로디노프는 이런 엄청난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을 '호기심', 즉 '왜'라고 묻는 인간의 본능에서 찾는다. 저자는 인간의 이런 성향을 탐구하며, 그것이 발전시켜온 과학적 사고의 고대 시작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추적한다. <까지·2만원>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특허방수 2중외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바탕처리 Step 2. 단열방수 Step 3. 외벽외벽방수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선택가능. 그에서 만나는 보색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 랜디니와의 콜라보 디자인!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